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인민군렬사추모탑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들어총구령을 내리였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간직하고 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을 이어 계승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본사기자



7월의 퇴성은 아메리카제국의 파멸을 선고한다

7월은 국제사회에 조선이 미국과의 첫 대전에서 전승을 기록한 뜻깊은 달로 각인되어있다.

물론 미국의 정객들에게는 수백년간의 침략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저주로운 달이기도 하다.

청소한 공화국이 도발자 미제를 라승한 대미승전사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출중한 영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안아오신 전승업적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오늘 조선은 위대한 주석님과 꼭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

흔히 사가들은 지난 조선전쟁을 두고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평한다.

지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도발자 미국과 창건된지 2년도 되지 않는 청소한 조선의 대결은 어느모로 보나 보통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고난 세계도 신생조선의 머리에 드리워진 전운을 두고 누구라 없이 커다란 우려와 동정을 금치 못하였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때 여차하면 핵무기도 불사할 범죄적기도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45년 7월에 세계최초로 원자탄을 보유하게 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핵무기에 의거하여 새롭게 구축하려고 획책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오늘부터 세계는 미국의 발밑에 놓이게 되었다.》고 숨김없이 내뱉은 폭언에 당처울 인류의 재앙, 조선민족의 불행이 내재되어있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투하로 인류를 멸망시킬수 있는 《악마의 무기》로서의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실전검토한 미국이 면밀한 계획밑에 준비하여 치른 첫 해외 침략전쟁이 다음아닌 조선전쟁이라는 사실에 류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땅 짚고 헤엄치기》, 《즐거운 여행》, 《72시간내에 결판날 싸움》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전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번져자 미국은 이를 역전시켜보려고 주머니속의 핵무기를 꺼내들고 실전단계에 들어갔다.

그 첫 시도가 1950년 11월 30일 《조선에 대해 원자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미국의 용의》를 표시한 대통령 트루먼의 기자회견발언이다.

사실상 그것은 조선이 원자탄세례를 당하든가 아니면 항복하든가 두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로골적인 공갈협박이였다.

트루먼의 원자탄사용폭언은 얼마후인 12월 《중중접경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한다는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계획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하였다.

일본잡지 《아사히저널》(1982년 8월 6일호)은 《미국이 1950년 12월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 은밀히 핵무기를 반입하였고 핵탄두를 적재한 함재기는 최후의 발진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었다.

얼마나 소름끼치는 미국의 핵범죄인가.

트루먼에 이어 1952년 12월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해야 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같은인 또 한분의 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패거를 안아오며 최후의 결승주자로에 당당히 들어서고있다.

지난 7월 4일에 올려퍼진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장쾌한 폭음은 악의 제국 미국의 최후멸망을 선고하는 선군조선의 퇴성이고 자랑스러운 승전고이다.

세기와 년대를 넘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펼쳐가는 조선의 7월, 그 승리사적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저 미숙한 붓을 들었다.

재미동포 김련주

본때를 보여주자고 주석님께서 우렁우렁하게 말씀하시였다니 전쟁의 운명은 그때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쟁은 단지 철과 철의 대결이 아니라 정신력의 대결, 지략과 담력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우쭐대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가 맥을 출수 없게 만든 조선의 영웅적인 투쟁정신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의 성전에 불러일으킨 주석님이 주신것이고 정규적인 전쟁을 처음 치르어보는 신생조선이 백수십차례의 침략전쟁경험을 가진 미국을 사정없이 두들겨쳐며 죽음의 함정골에 련속 몰아넣은것도 항일의 전설적명장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뛰어난 전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석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강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전법들은 조선의 고지들마다에 승리의 공화국기가 펄럭이게 했고 산과 골짜기, 강하천들을 침략자의 더러운 시체들로 화하게 했다.

그때의 수치를 두고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국도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두명 파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습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키는 무덤이였다.

상대 한 적의 북조선군 총수 김일성장군은 30대의 젊은 장군이였다.

그분의 뛰어난 지략과 명군술에 의해 미국이 패전의 고배를 마신것은 수치스러운 대아메리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보총이 원자탄을 이긴 전쟁! 그래서 기적이고 신화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는 조선전쟁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안겨오는 조선의 7월이다.

《무적》이라 떠들던 강도일제에 이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미국을 다승하시여 반미대결전에서 력사적인 첫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고 령장중의 제일령장이시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7월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를 긍지높게 되새겨보는 환희와 격동의 7월로, 미국에는 세계의 면전에서 아메리카제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부서져나간 《수치와 절망의 7월》로 력사에 새겨졌다.

미국의 심장부를 겨는 조선의 절대병기

조선전쟁에서 패전의 뼈아픈 수치를 겪고난 미국의 정객들속에서는 그 원인이 마치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황당한 꾀변이 울려나온적이 있었다.

핵만능론, 핵우월론에 사로잡힌 핵광신자들의 어리석은 너두리가 아닐수 없다.

그래서 《이허진 전쟁》을 《승리한 핵전쟁》으로 만회하고싶은 미국이 정전이후 조선에 대한 핵공갈위협에 그토록 광분해왔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난지 4년밖에 안되던 1957년 7월에 미국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정식 공표하였다.

올해가 바로 미국이 핵무기의 남조선반입을 세상에 공표한 때로부터 꼭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지나간 60년간 미국은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무려 1720개를 넘어서었다.

그러나 그 어떤 핵공갈과 위협으로써도 결코 영웅조선을 굴복시킬수는 없었다.

미국에 의해 산생된 조미핵대결의

재미동포 김련주

미국인들 스스로가 말하듯이 《건국이래 직면한 최고의 위협》이고 그 위협이 눈앞에 닥쳐온 《가장 급박한 위협》이다.

세계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조선을 포함하여 9개 나라가 된다. 수백,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진 핵대국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다른 그 어느 나라의 핵무기가 아닌 조선의 핵무기이다.

미국은 왜 조선의 핵을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조선의 핵에 정의가 있기때문이다.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도 조선의 핵에 있고 폭제의 핵을 불사르는 평화수호의 힘도 이 핵에 있으며 인간세상에 참다운 광명을 안겨주는 신비의 빛도 조선이 틀어킨 정의의 핵에서 발산한다.

지금껏 인류가 보아온 핵과는 전혀 다른 정의의 핵을 탄생시켜 반제반미대결전의 최강의 무기를 마련해 주신분이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그분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세계가 찬란하는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의 핵무력강화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무장국으로 행성에 우뚝 올려세워주시였다.

문무를 겸비하신 탁월한 정치가, 군사가, 전략가이시며 세계에서 제일 강하신 최고령도자님이 아니시라면 적대세력들의 그 모진 제재와 압박, 위협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현실이 조선에서 펼쳐질수 있었겠는가.

행성을 뒤흔든 첫 수소탄시험의 거대한 퇴성은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날려버리시려는 백두산장군의 불호령이고 미국이 겁겁이 쳐놓은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찢으며 결단코 완성한 조선의 핵무력은 친출위인의 자주의 역센 신념이 이루어놓은것이다.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조선의 강력한 핵공격능력은 그 어떤 불의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과시이며 만리대공에 련이어 솟구쳐날오는 탄도로켓들은 승리만을 떨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정의의 주체탄들이다.

그분의 심중에서는 지금 무엇이 고동치고있는가.

조선민족에게 끝이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악의 제국을 단호히 징벌하고 조선민족의 영원한 평화와 발전의 길,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가시려는 각오와 역척의 신념, 의지이라고 본다.

얼마전 한 재미동포군사평론가가 쓴 도서를 읽어보았는데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대해 세기를 이어온 미국과의 판가리대결전을 승리적으로 종결짓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여시라고 하늘이 우리 겨레에게 보내준분이시라는 흥미있는 견해가 실리였다. 나도 그 견해에 충분히 공감이가다.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어가며 조선이 벌리고있는 미국과의 대결전을 주시해보느라면 언제인가 주석님의 만경대고향집방문시에 보았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시구절이 떠오른다.

만경대일가의 애국녀님, 때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와야 한다는 《지원》의 애국사상이 이 가슴을 울려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국방과학자들을 찾아가시고 위험한 로켓조립장에도 함께 계시며 로켓설계문건도 보아주시고 시험발사의 가슴조이는 장면들도 현저하게 보아주시는 그 눈물겨운 헌신과 령도의 자욱자욱은 미국을 력사상 처음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시였던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전승업적과 선군의 힘으로 제국주의운명

에 조종을 울리신 김정일장군님의 반미결전의지를 이어받아 기어이 자신께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결연한 각오와 《지원》의 사상의 최대분출이라 해야 할것이다.

행성을 뒤흔든 7월의 장쾌한 퇴성으로 조선민족의 주적인 미국의 《독립절》이 《망국절》로 되게 하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테프를 자랑스럽게 끌어주신분도 친출명장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다.

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고 미국과의 지나간 대결을 조선의 빛나는 승리로 마감할 강력한 군사적담보로 되는 최강의 전략무기 《화성—14》형이야말로 절세위인의 핵강국건설의 크나큰 응지와 애국의 념, 결연한 의지와 탁월한 군사과학적예지, 무수한 헌신의 땀방울들이 거대한 만리대공에 솟구쳐오른 조선의 자랑,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로켓트라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100여년전 화승총밖에 가진것이 없어 종당에는 바다를 건너온 왜적에게 국권과 령도마저 송두리채 빼앗겼던 그 조선이 오늘은 대양너머 침략의 분거지도 마음대로 타격할수 있는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되였다.

힘이 없어 왜놈의 총칼에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무참히 유린당하던 그 조선민족이 오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핵강국, 다종의 전략핵무기들을 그쁘히 갖춘 최강의 민족으로 세계의 최정상에 올라섰다.

《화성—14》형이 어찌 북만의 대륙간탄도로켓트라고 하랴.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통일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8천만 겨레 모두의 로켓트이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조선민족 대 미국의 수세기에 걸쳐 오는 악연과 대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세기를 이어오는 치열한 싸움, 그 결말은 이제 너무나 명백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얼마전 미중양정보국의 이전 부국장 마이클 모렐이 실토했것처럼 미국에게는 이제 조선을 상대로 쓸수 있는 《선택안》이 거의나 없다.

제재도 거덜이 나고 회유와 위협도 통하지 않으며 《군사적수단》은 미국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이라고 미국인들도 입을 모으고있다.

남은것은 단 하나, 조선의 국가주권과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길밖에 없다.

오래전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조선반도를 《대륙이라는 비계덩이를 잘라먹을수 있는 단검》으로 묘사하며 조선침략의 수치스러운 길을 열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손에 쥔 조선은 오늘 악의 제국—미국의 심장부를 도려낼수 있는 정의의 비수로 되고있다.

7월의 퇴성이 온 누리를 진감하는 지금 미국은 끝없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있지만 조선은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대사변, 조선민족의 력사적인 대승리를 경축하며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이 7월에 조선은 웃고 미국은 울고있다.

이 상반되는 두 표정은 보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승리자의 환호성과 원자탄을 가지고도 보총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자의 곡성으로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던 64년전 7.27의 재현이며 앞으로도 달리는 뿔수 없는 조미대결전의 예고편이라고 말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엄청난 불행과 재난만을 들춰왔은 미국이 이제 조선인민앞에 흰기를 들고 무릎꿇을 날은 멀지 않았다.

백두의 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7월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달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

지난 4일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이 세계에 준 충격은 대단히 크다. 세계언론들은 《북조선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 성공》, 《북조선로켓 미국의 심장부타격 가능》 등의 제목으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그로 하여 세계는 죽가마뚤 듯 하였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공화국의 급속한 로켓개발속도와 그 기술적진보에 대하여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계의 미사일전문가들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은 그 누구의 지원이나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새

롭게 탄생한 창조물이라고 격찬하고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화성-14》형이 남의것을 조합하거나 복제한것이 아니라 조선이 《자체로 개발한 진품》, 《이전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재진입기술과 자체제어능력은 세계적수준이며 특히 중량핵탄두까지 장착할수 있어 앞으로의 추가개발태도 탄탄하다고 평하였다. 공화국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후 대륙간탄도로켓까지 개발하려면 빨라도 2~3년은 걸릴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미국은 그로부터 불과 2달도 못되는 너무도 짧은 기간에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가 대성공하자기가 막혀 공포와 절망의 비명만을 지르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세계를 압도하는 공화국의 국방과학의 비약적발전을 보여주는 축도라고 할수 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성공으로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가게 되었다. 공화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이 세계적인 전략무기도 짧은 기간에 최고의 수준에서 척척 만들어낼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시고 과학으로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도 단숨에 점령하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그것은 국방과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핵무력강화를 이끄시는 원수님께서 제일 아끼고 내세워주시는것이 다름아닌 국방과학자들과 기술자이다. 최근년간 조선에서 련이어 개발된 새형의 주체무기, 행성의 군사대국들도 놀라와하는 공화국의 그 어느 전략무기에도 국방과학기술발전이 기여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땀방울이 깃들어있지 않은것이 없다. 그이의 세

심한 지도밑에 공화국의 국방과학자들은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탄도로켓들도 만들어내고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좌우리는 탄도로켓발사기술도 개발하였으며 핵탄의 소형화,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역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애국의 헌신과 로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빛나는 창조물이다. 몸소 《화성-14》형개발 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기발

한 과학적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적이고 과학적인 령도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창조의 나래를 펼쳐주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기념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대륙발동기연구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자를 업어주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것은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그이의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의 표시이다. 그이께서는 국방과학부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룩될 때마다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돌려주시고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세워주시었다. 국방과학전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혈연의 정을 부어주시며 세상에 높이 떠받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하늘같은 헌신적성공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는 원천으로 되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라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고 강력한 전략무기체계를 완성하여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기상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은 앞으로도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으킬것이며 세계가 보란듯이 자위의 핵무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축포를 자랑스럽게 쏘아올리게 될 것이다.

송명수



비행사들에게 내린 사랑의 명령

국가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는 전이나 평시에 나 어느 한 순간도 자기 위치를 떠나는 《만일》이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 항시적으로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공화국에서 영광을 잠시라도 비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당시에도 조선반도정세는 첨예하고 긴장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달한속에 《쌍룡》련합상륙훈련이 개시되고 100여대의 비행기들이 동원된 《맥스 썬더》공중중합군사연습도 계획되어있었다. 호전세력들의 무모하고 광기어린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인민군대 항공군의 비행사들은 비행기 좌실에서 박피를 조여매고 출격태세를 견지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전군의 모든 비행사들을 평양으로 모이도록 할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군에 내리신 명령이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항공군의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모두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비행사전원이 비행기에 내린다는것은 건군사에 전례가 없는것이었고 전투직일군무를 배제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없다고, 모두 대회에 참가시키자고, 조국의 하늘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시며 자신의 결심과 용단을 확고히 굳히시었다. 그이의 명령에는 태양절을 맞으며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휴식도 하도록 하고 비행사대회도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하여 4월의 뜻깊은 태양절에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날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 개방해놓고 평양에 전군의 모든 비행사들을 불러 비행사대회를 진행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라고 하시었다. 그

리시면서 여름에는 달아오른 활주로의 피약발밑에서, 겨울에는 온몸이 꽁꽁 얼어드는 좌실에 앉아 전투직일군무를 수행하면서 조국방위, 조국수호의 항로를 날으는 비행사동무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었다. 동무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기회에 최고사령관을 믿고 다문 며칠만이라도 마음을 놓고 휴식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동무들이 내려가 비행기좌실에 올라왔기 전까지 제국주의공중비적들은 한대도 일선 못한다고, 그러니 마음을 꼭 놓고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다시금 은정깊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었다. 뜻깊은 태양절에 비행사들의 대회를 마련하시고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비행사들이 구름속천리, 날비속 만리를 용감히 뚫고 날으는 불굴의 애로 조국의 영광을 철용성같이 지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금순

세계에는 나라가 많다. 인구밀도가 높아 대륙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도 있고 땅이 넓어 대륙이라고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다. 지정학적위치로 볼 때 조선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워있는 자그마한 반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크지 않은 조선이 오늘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핵강국, 로켓대륙으로 세계우에 우뚝 올라서 있다. 얼마전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 한번에 완전히 성공시킴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자기의 힘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 주체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완성이었다. 한순간에 그 의미를 다 되새겨보기에는 맛이 한 사변이 너무도 가슴 벅차다. 몇 안되는 대국들의 군사적독점물로 되어있던 대륙간탄도로켓

트가 주체조선의 손에 쥐여졌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치적공갈과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탄도탄 보유국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오늘은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것은 저마다 남시대를 드러우고있는 한장의 그림으로 당시 령강들의 각축전장이었던 조선의 비참사를 묘사한바있다. 령강들은 경쟁적으로 조선반도수역에 군함을 몰고와서 대포를 쏘아대었으며 주변나라들은 꺼림없이 조선땅에 와서 전쟁을 치르었지만 총한자루 변변하게 없었던 조선은 바른소리 한마디 하지못하였으며 끝내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 미사일위협과 공갈에 대한 단호한 대답으로 된다.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크게 향상된 오늘 미국과 적대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과산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북이 일선단결과 핵무력, 자강력의 사회주의 3대기등을 버리어놓고있는 한 외부의 그 어떤 작용에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트럼프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포기하고 북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조선정책에 매달리는 정부를 압박해나가고있다. 미국은 마땅히 현실을 직시하고 공화국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적대시입살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자주는 군력으로 담보된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흠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어서 새형의 침탄로켓 개발의 초행길을 한치한 치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때문이다. 국력은 강위력한 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의감이 강하고 민족적우월감이 높았던 민족이었던 100여년전 조선의 모습은 어떠하였던가.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강물우에 드러난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민족수난의 참담한 길을 걸어야 했다. 그후에는 미국에 의하여 전쟁을 강요당하면서 원자탄공갈에 수 많은 가족친척들이 갈라져서 민족분열의 뼈아픔을 느끼며 고통속에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공화국이 세계 군사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공화국이 절대무기인 수소탄과 함께 그것을 실어나를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오늘날 미국은 저들

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 미사일위협과 공갈에 대한 단호한 대답으로 된다.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크게 향상된 오늘 미국과 적대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과산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북이 일선단결과 핵무력, 자강력의 사회주의 3대기등을 버리어놓고있는 한 외부의 그 어떤 작용에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트럼프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포기하고 북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조선정책에 매달리는 정부를 압박해나가고있다. 미국은 마땅히 현실을 직시하고 공화국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적대시입살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시뮬음

뢰 성 치 라 7 월 의 최 후 승 전 가 여 !

영 원 한 은 인

김 태 룡

그 누가 말했던가
사랑중의 사랑은 지켜주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 못 잊어 우리 겨레
오늘도 길이 다함없이 경모하는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이시여

파피와 페허만을 기록해온 인류전쟁사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보지 않았거나
귀중한 문화재를 불속에서 구원하시러
새벽으로 공격시간 늦추라
사랑의 명령 내리신 장군을

세계가 경탄한 승리의 기적
7.27 그 이름으로 력사에 새기신 령장
참혹한 전쟁의 불구름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 이 강토를 지켜
미제의 등뼈를 꺾으신 위대한 수호자

낮과 밤을 태우는 준엄한 싸움
그이에게 있어 겨레의 운명은
결코 총포탄의 뒤전에 놓이지 않았거나
서울의 시민들 겨울나이 떨나무를
강물에 띄워보내신 어버이사랑이여

이 행성에 뚜렷이 새겨진
조선의 신화 전승의 신화여 말하라
어떻게 미제가 파멸의 나락에 나딩굴며
절망과 고뇌를 들이쳤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안아왔는가

담대한 배짱 뛰어난 지략도
미제를 굴복시킨 천하의 강대함도
사랑으로 창출하신 회세의 위인
사랑이 깃뚫혀온 전쟁사의 갈피에
처음으로 새기셨어라 사랑으로 이긴 전쟁을

그것은 사랑이었다
읽을수 없고 빼앗길수 없는
소중한 모든것에 대한 사무친 정이었다
수령님 강철의 그 심장속에 타뫼은
사랑이 힘이었고 정의였고 승리였다

침략의 불구름 사랑으로 타승하시여
백승의 령장이 안아온 7.27
민족의 운명 삼천리강토의 운명 지켜준
영원한 은인의 노래
겨레는 후세도록 길이 전하리라

최 후 승 리 의 총 성 이 울 린 다

리 송 일

푸르른 잎새들을 안은 나무들조차
총대처럼 안겨오는 여기
내 나라의 첫 병기공장
선군총대의 고향—평천혁명사적지

세상에 드높이 울려주시러
수령님 오셨던 12월에
우리 원수님 여기 다녀가셨던가

이 구내에 들어서니
걸음걸음 뜨거운 불멸의 자욱들이여
이내 마음에 울리어온다
그날의 총소리 총소리...

평천하늘가에 울리던 그날의 총성
수소탄의 굉음으로
주체란의 퇴성으로 더 높이 울려주신
우리 원수님
내 조국을 불패의 핵강국
로켓트맹주국으로 우뚝 세우셨거니

작업대의 부분품들, 공구들도
어느것 하나 무시할 불수 없어라
화승대 한자루 변변한것 없어
섬오랑개에게 깃뚫혔던 우리 민족이
제 손으로 만든 첫 기관단총!

《화성—12》형, 《북극성—2》형, 《화성—14》형...

다발적, 련발적으로 하늘 높이 솟구치며
원수들 전를케 하는 우리의 로켓트들
섬멸의 화염 징벌의 불세례앞에
살아남을자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그 기관단총 틀어잡으시고
여기서 우리 수령님
해방조국에 울려주신 총성이여
그것은 두번 다시 노예로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선언이었거니

이제 멀지 않았다
이 강토 우리 민족을 둘로 가르고
뼈아픈 분렬을 강요한 미제의 종말은
세기를 두고 불행과 고통만을 들썩운
그 미제를 영영 매장할 그날은

그 총성으로
신생조선을 알보며 덤벼든 미제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은 7.27안아왔고
그 총성으로
세기와 세대를 이은 반미대결전에서
우리는 승리만을 떨쳤다

아, 세월을 넘어 오늘도
쟁쟁히 울려오는 첫 기관단총의 총소리
나의 가슴 세차게 울려주어라
오만무도한 미제의 명줄을 끊는
최후승리의 드세찬 총성으로

그 자위의 총성, 승리의 총성

7 월 의 환 희

김 윤 식

경사로운 전승절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뜨겁게 달려가노라
격정의 세찬 파도 강토에 굽이치던
7월 4일 잊지 못할 그날로

미제에게 또 한차례
쓰디쓴 파멸을 안긴 전승의 날
민족의 대경사 특대사변이었다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은 행성을 일시에 들끓게 한 패승소식에
목청껏 만세를 더친 그날은

어찌 승리라 우리 부르지 않으랴
피땀민족의 한을 후련히 풀며
미제의 심장부를 단숨에 들어낼
보검을 들이친 력사의 이날을
폭제와 침략의 총파산을 선언한

이날은 승리중의 대승리!

내가 로켓트를 사랑하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 하시며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핵강국을 세우신 우리 원수님
로켓트강국을 세우신 위대한 장군이시여

가슴 뜨겁게 어려오누나
위험천만한 로켓트발사장에
거연히 서계시던 원수님 모습
조국과 인민위한 결사전의 맨 앞장에
결연히 나서신 위대한 수호자

그 모습은 불비 쏟아지는
화선천리를 주름잡으시며

미제멸망의 시초 열어놓으시고
선군총대로 제국주의떼무리 쳐갈기시던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가 아니었던가

천하제일명장 절세의 애국자
그이 계시여 조선의 승리는 과학
정의와 힘 승리—그것은 오직
이 땅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안녕을 지켜서신
김정은장군—그이의것!

2017년 7월 4일
우리의 《화성》이 우주에 새기는
승리의 비행운을 온 겨레가 우러른 날
위대한 령장이 안아오신 이날은
오, 민족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7.27이었다

전 승 음 악 회

- 한 전쟁로병의 이야기 -

김 영 일

고령의 이 가슴 높뛰게 하는
격동의 파도라 어찌 말하지 않겠소
감격이 솟구쳐 진정할길 없구려
대륙간탄도로켓트 시험발사성공기념
성대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우리는 미제를 이긴 승리를 노래했고
전승축포 터져오를 조국을 노래했나니
그날처럼 이 로병은 보고있소
원수님 모신 경축공연의 혁명군가에서
우리 안아올 빛나는 최후승리를

원수님 모시고 온 세상 뒤울리게
보란듯이 쏘아올린 로켓트의 퇴성
또다시 들썩하게 울리는 노래의 포성
전화의 그 나날 박달령에 울려가던
추억의 노래가 삼삼히 떠오르오

대륙간탄도로켓트를 쏘아올리고
화염배인 군복을 입고 달려온 영웅들
승전보고 안고 달려온 장병들인듯
그들에게 축하의 손 저어주시는 원수님
령장을 모시고 병사들 모여앉은 화선음악
회인듯

불에 잠긴 고지 생사를 건 전투가
낮과 밤 이어 벌어지던 결전의 그 나날
불타버린 나무 포탄파편으로
우리는 화선악기 만들었소
승리를 믿고 승전고를 드높이 울려야겠소

정말 간절하오
화선악기를 들고 무대우에 서고싶은 마음
아무리 미국놈들 악을 쓰며 날뛰어도
이미 승리는 우리 조선의것
50년대에도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오늘도 기억에 생생하오
원수들의 포성 깃누르며 울려가던
불타는 고지우의 화선음악회
포연내 배인 군복을 입고
평양에서 펼쳤던 예술공연대회

나는 듣고있소
미제를 이긴 조선의 승전가를
미국의 머리우에 처량히 울리는 장송곡을
오, 원수님 모신 승리의 공연
세계여 보라 조선의 전승음악회를

가렬한 전쟁은 한창이었어도

미 국 에 보 내 는 최 후 통 첩

김 송 립

정의를 말로 지키지 못하는 이 행성에서
힘이 없으면 존엄을 잃는 이 시대에
미제의 숨통을 거머쥔 조선
7.27 전승의 이날에 선언한다
미제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이긴
1950년대 조선의 전승신화
그 신화는 마지막페이지를 덮지 않았거나
이제 더는 대양 건너 먼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불의 철퇴로 가져왔이 내리찍을
미국은 우리 손탁에 쥐어져있다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침략의 불구름 들썩우는 미제
전쟁연습의 불장난으로
이 땅의 안정, 평화를 유린하는 미제
죽음을 주리라 민족의 이름으로!

듣느냐, 수소탄보유국의 핵폭음을
보느냐, 주체란들의 장쾌한 불줄기를
머리통 싸쥐고 절망과 고민에 빠진
가련한 아메리카여
아직도 무진막강 우리의 힘 꺾어보려
기를 쓰고 헛된 꿈길 헤매지 말라

미제, 너희들 내리막길의 시초 열어놓은
유일한 나라도 조선
너희들의 운명에 가져왔이
물락의 종지부 찍을 나라도 조선
빈말이 아니다 우리의 이 경고는

죽어 문힐놈은 있어도
살아 숨힐놈은 결코 없을 반미대결전
산송장의 구슬픈 운명 우린 예고하거나
오직 선택의 여지는 하나뿐
흰기를 들고 무릎을 꿇는것

력사는 기억하고있다
추위에 떨며 눈속에 언 시체로 나딩굴던
장진호반의 미제의 참상을
《상심령》, 《함정골》이라 공포에 떨며
전를을 토하던 1211고지에서의 패배상을

바로 이것이 미국에 보내는
조선의 마지막 통고장이다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최후통첩이다

위 대 한 승 리 의 날

7월 4일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 두고두고 기억될 위대한 승리의 날, 사변적인 경사의 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날 공화국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여 대성공하는 눈부신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알리는 장쾌한 선언이었다. 온 행성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진통에 싸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 충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발사 성공이 가지는 사변적의의는 적지 않다.

그것은 우선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는 데 있다.

공화국은 수소탄과 각종 핵탄,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이룩하였다.

핵과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최강의 나라로 공화국은

행성에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사실 누구나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핵무기이고 대륙간탄도로켓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모진 제재와 압박을 박차고 자기의 기술과 힘으로 끝내 이 위력한 무기들을 자기 손에 틀어쥐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반만년 민족사의 대경사, 특기할 대사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켜보면 100여년전까지만 해도 조선민족의 손에는 창과

활, 화승대박에 없었다.

남들이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날릴 때 그것을 부러움에 차서 바라보며 언젠면 내 나라도 저런 때가 오겠는가 하며 서글픈 감정을 토로하던 우리 겨레였다.

힘이 약해서 결국은 대포를 끌고온 외세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은 행성의 절대병기라고 하는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최강의 민족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은 나라 인민들이 크나큰 격동과 환희에 잠겨 춤추고 노래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대륙과 대양을 잇는 위치에 있고 주변에 대국들이 있어 역사적으로 외세의 간섭의 마당이 되고 리권쟁탈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 조선 반도이고 그 땅에서 사는 조선민족의 슬픈 운명이었다. 힘이 약해 짓밟히고 외면당하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 세상이 경탄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방의 핵

강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그 위용이 빛나고 조선을 축으로 세계의 정치군사지형도가 급속도로 변하게 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보유는 공화국이 정의의 반미대결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할 그날을 앞당겨오는데서도 획기적인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결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침략의 핵에 맞서 자위의 핵퇴성을 올린 공화국이다. 2006년 조선의 자위의 첫 핵퇴성이 지구를 흔는데 이어 련이온 핵시험과 각이한 사거리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에는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세계를 놀래운 공화국이다.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권내에 두고있는 전략탄도로켓이 개발된 때로부터 불과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새로 개발하여 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하는 기적같은 현실을 안아왔다. 이로써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조선의 강력한 전략무기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결전을 조선의 승리로 빛나

게 계속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조선이 쥔것으로서 공화국에는 역사적인 승리로, 미국에는 비참한 파멸을 예고해준것으로 된다. 외신들이 《6.25전쟁 이래 60여년간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온 조선이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다.》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과의 역사적인 대결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도 장을 찍을 날은 멀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보유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기약해주는 특기할 대경사이기도 하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번영은 강력한 군력을 담보로 한다. 공화국이 수소탄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누구도 공화국을 건드릴수 없게 되었으며 영원한 행복과 평화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공화국이 경제발전에서 더욱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어느 한 외신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쥔 조선이 대륙길과 바다길을 잇는 지정학적위치에서 서서 경제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로 주제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보유를 알린 7월 4일은 우리 민족과 공화국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록되고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미국을 위한 바른 선택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 64돛이 되는 7월 27일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대성공의 기쁨과 환희에 잠겨 뜻깊은 명절의 하루를 보내었다.

세월은 많이 흐르고 세대도 바뀌었지만 오늘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 미국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그날의 영웅정신, 7월의 승리정신으로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다.

공화국의 남미로소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그안에는 미국에 대한 증오가 가득차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뿌리가 깊고 쌓일대로 쌓인 이 세상 가장 크고 강렬한 중요심이다. 이 나라 인민들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기며 한번은 맞서서 최후결판을 보아야 한다며 저마다 분노와 복수심을 터치고 있는 것인가.

선량한 조선민족의 가슴에 반미의 중요심을 심어준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자신이었다.

《서면》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조선침략사는 백수십년을 헤아리며 일제의 저주로운 조선강점의 밑바탕에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침략의 검은 손길이 뻗어져 있다. 지난 세기 40년대 중엽 조국해방의 기쁨속에 들끓던 우리 겨레에게 국토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최대의 불행운을 안겨준 장본인도 미국이다. 남조선에 강점하고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이 도처에서 얼마나 귀족같은 살육만행을 저질렀는가를 오늘도 공화국

의 군대와 인민은 잊지 않고 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미국은 세기에 세기를 이어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펴오고 있다. 핵무기로도 위협하고 전쟁위협을 항시적으로 조성하여왔으며 비열한 제재와 압박, 봉쇄소동으로 공화국의 경제와 인민생활향상에도 갖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해오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그 퍼문은 침략국가 조선반도에 발을 뻗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분열도, 전쟁도, 항시적인 전쟁불안도 없었을 것이며 조선민족은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즐기치게 되어있을 것이다.

우리 공화국과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항시적인 전쟁의 근원이고 온갖 재난과 불행의 화근이며 발전과 행복의 최대 장애로 되고 있다.

하기에 조선은 반미의 기치를 세기를 이어 높이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을 통해 한번 치른 미국과의 대결결전을 세기를 이어 벌려오며 침략의 원흉인 미국과 반드시 피의 결산을 하려 한다. 그 대결결전은 지금 마지막계선으로 치닫고 있다.

반미의 중요심을 끌어온 조선의 손에는 지금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이 쥐어져 있다. 그것은 조선이 자력자강으로 만들어내고 오늘날 그 위력이 최대로 강화된 핵공격능력이다.

조선의 핵무기에는 세기를 이어온 반미중요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핵과 반미중요심을 합친 우리의 핵무기를 미국은 가

장 무서워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의 위협》이라 하며 련일 비명을 지르고 요격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운다. 핵대포화련을 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내고 있다.

아메리카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오늘날처럼 미국이 본토가 핵불바다가 될수 있다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본적이 과연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스스로 초래한 최대의 위기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무자비한 핵불세례앞에서 한갓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될 요격미사일을 증강한다 어쩌다하며 부질없는 놀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도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조선은 지구상 가장 평화애호적인 국가이다. 평화를 그토록 사랑하지만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 나라도 조선이다. 공화국의 군민이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고 지금 이 땅위에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미국은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이미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 줄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도 전쟁으로 대답할것이고 미국이 핵싸움을 걸면 우리도 정의의 핵불벼락을 안기겠다는 조선의 철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것이다.

전세계가 지켜본 7월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그 역사적인 대성공은

미국에 보낸 조선의 최후 통첩장이다. 적대와 압살의 천만부당한 정책을 고집하면서 미국이 계속 핵전쟁위협과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소동에 매달린다면 미국의 심장부에 징벌의 핵불소나기가 쏟아지게 될것이라는 단호한 경고이다.

지금 선택을 바로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피해만을 당해온 조선이 아니라 최대의 기해자인 미국이다.

정의와 힘도 조선에 있고 최강의 의지와 시간도 조선의 편에 있다. 미국이 어떤 수단을 쓰든 조선의 대미강경의지를 꺾을수 없고 시간이 한초한 초 흐를수록 최대로 불리해질것은 미국자신이다.

미국은 현실을 냉철히 투시해보고 이제라도 역사적으로 공화국에 지은 최악을 청산하는 바른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위한 바른 선택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이발빠진 미국의 《힘》 자랑

얼마전 미국대통령이 그 무슨 모임에 나타나 《미국의 힘은 세계최강》이라느니 《더 강해지고 있다.》느니 하며 똥소리를 쳐냈다.

늘고 힘이 다 빠져 날로 쇠퇴몰락하는 미국을 세계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세다고 말하는 이런 허풍을 발언이 튀어나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나라가 생겨 오늘까지 《힘》자랑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힘》을 빼개놓고 보면 작은 나라, 힘이 약한 나라들만 골라서 때리는 허세로 일관되어 있다. 정작 상대해야 할 진짜 강한 적수와는 맞불기를 두려워하는 미국이다.

돌아켜보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신화는 이미 오래전인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과의 전쟁에서 여지없이 부서져나갔었다.

수백 차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던 미국의 거만한 코대는 창건된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의 영웅한 군대와 인민에 의하여 무참하게 꺾어지고 아메리카 《상승사단》들은 피멸사단들로 전략하여 조선의 산야들에 시체로 나뒹굴게 되었다. 조선은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며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뭉친 힘은 능히 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 동방의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에 의해 련속 강타를 당하고 마지막운명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도 행성의 제노라 하는 미국이다. 최강의 힘을 갖추고 정의의 반미대결결전의 최후승전고를 련속 울려가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갓 비대한 몸을 민고 설쳐대는 이발빠진 승냥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줄곧 물어뜯어온 미국의 퍼문은 핵이발을 부러뜨린 것이 선군조선의 역센 정의의 핵마치이다.

미국의 《힘》자랑은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모르나 조선에는 추호도 통할수가 없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며 세기를 이어오는 정의의 반미대결결전을 빛나는 승리로 종결시킬것이다. 이것이 이번 전승 7.27에 공화국의 군민이 더욱 굳세게 가다듬은 최후결전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미국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패전을 《기념》하는 추한 광대놀음

못난자는 명예를 도적질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패배자로서의 수치와 오명에서 벗어나보겠다고 7.27을 계기로 형형색색의 추악한 광대놀음을 또 다시 벌여놓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은 24일부터 돈에 팔려 조선전쟁에 뛰어들었다가 패전의 쓴맛을 보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산송장들에게 혼패를 달아주는가 하면 이미 그 존재가 유명무실해진 스위스 자립국감독위원회의 근무자들을 초청하여 참관놀음까지 벌여왔다. 그런가 하면 23일부터 미국의 역사 및 사회과학분야의 교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어 《유엔참전국 교사평화캠프》라는것을 열고 6.25복합전쟁을 미화하면서 동족대결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 무슨 《품앗이 사절단》이라는것을 유럽나라들에 보내어 조선전쟁에 뛰어들었던 고용병들과 가족들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해피한 놀음도 벌리고있다.

7.27을 계기로 벌려놓은 이러한 놀음이 복합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적정체와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반공화국적대감을 적극 고취하려는 패배자들의 역겨운 광대극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역사상 가장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돈의 노예가 되어 조선전쟁판에 뛰어들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한 미제침략군과 참전국의 고용병들에게 있어서 지난 조선전쟁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악몽으로 되고 있다.

《신화는 깨어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한 패전장군의 고백에는 미국의 비참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역사는 지워버릴수도, 위조할수도 없다. 산천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승전과 패전의 역사는 그대로 존재하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저들의 참패를 《승전》으로 둔갑시키고 《기념행사》를 팔백번 벌여놓는다고 해도 불의가 정의로 될수 없고 수치스러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침략자들의 패전사는 영원히 지울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광대놀음에 열을 올리는 속심은 제2의 조선전쟁을 기어이 도발하여 대참패의 양갈음을 하려는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공화국의 국력은 지난 195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화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최강의 힘이 있다. 동방블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올라선 공화국은 미국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승리의 법칙을 역사에 더욱 자랑스럽게 써나가게 될것이다.

황금철

《대북전략》을 통해 드러낸 대결본색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집권기간 추진할 《대북전략》이라는것도 들어있다.

《남북화해협력》과 《〈한〉 반도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운 《대북전략》은 《〈한〉 반도신경제지구상 및 경제통일구현》, 《남북기본협정체결》, 《북인권개선 및 인도적문제해결》, 《통일공감대확산과 통일국민협약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5대과제》로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북인권재단》 설립, 《국군포로, 랍북자문제》 해결, 《랄북자》들에 대한 지원, 《통일센터 설치계획추진》 등을 떠벌이며 의연히 《흡수통일》, 체제대결기도를 드러냈으며 《동해권에네르키 및 자원지대구축》이니, 《서해안경제협력지대창설》이니 하는 잡다한것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당국의 《대북전략》은 《북핵폐기》와 《흡수통일》을 총적목표로 한것으로서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 내들었던 《비핵, 개

방, 3 000》, 《〈한〉 반도신경제지구상 및 경제통일구현》과 《〈한〉 반도비핵화》와는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오히려 《화해, 협력》이라는 보자기에 감추어진 흥심은 더 간특하고 역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은 《핵문제》를 전제로 한 북남관계개선이란 있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공화국이 루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는 시한부까지 달아 《북핵폐기》를 《대북정책》의 총적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공언한것이 나 다행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의 사촉하에 남조선보수패당이 악랄하게 추구해온 반공화국 《인권》모략각본들을 《대북전략》에 그대로 버젓이 옮겨놓은것이다.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같은 근본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신경제지구상》이니, 《경제통일》이니 하는 잡다한것들을 내든것이야말로 현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치적》 쌓기,

인기몰이에 더 신경을 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벌려놓은 《대북전략》 발표놀음은 한마디로 미국에 추종하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제거하며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용납 못할 대결각본이며 박근혜역적패당과 다를바 없는 대결망동으로서 온 겨레의 비난과 규탄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걸과속이 다르게 놀아대면서 동족을 해치려는 불순한 흥심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와 초물민심의 눈빛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겨레와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외세와 짝자공이하여 동족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북남관계를 망치는 일만 하다가 역사와 민심의 응당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너절하고 수치스러운 전철을 되밟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부패보수가 기델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이 큰 변화를 보이고있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대구, 경상북도지역으로 말하면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울 정도로 지금까지 보수세력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되어온 곳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고향을 둔 《유신》독재자가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후 1960~1970년대에 이곳 출신들을 내세우고 자본들을 집중투자하여 산업중심지로 만든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 《박정희향수》가 뿌리깊이 남아있다. 거기에다 전라도출신이 집권하면 경상도가 망한다고 오래동안 악선전해오다보니

민주개혁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곳이 바로 대구, 경상북도지역이었다.

그러던 이 지역민심이 오늘에 와서 보수정당에 등을 돌려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데로 돌아서고있는 것이다.

최근 현 남조선당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함께 치솟으면서 보수정당들에서는 당원탈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1 000여명의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저마다 입당신청서를 내는 실정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매

주 토요일마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리는 전례없는 일까지 벌어지고있다.

《박정희향수》에 빠져있던 대구, 경상북도지역인민들이 보수세력들에게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달콤한 《공약》들을 람발하며 민심을 회유하고는 지지표를 모아준 보수지역 주민들에게 박근혜가 안겨준것이란 철석같이 약속했던 《동남권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싸드》 배치를 강행한것 등이었다.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에 대구, 경상북도의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제일 뒤떨어

졌다고 한다.

지금껏 보수패당이 고취해온 지역감정이란것도 따져놓고보면 저들의 집권야망을 위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지역발전을 억제하는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것이 이번에 대구, 경상북도지역민심이 체현한 인식일것이다.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세력전반이 집안개싸움질로 지리멸렬되어가는 지금 보수정당에 대한 민심의 환멸은 갈수록 커지고 민주개혁정당에 대한 기대감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보수지지기반의 이러한 민심변화는 그 어떤 정당이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입부리를 조심해야 한다

썩대끝에 올라간 민중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것처럼 기고만장한더니 남조선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노는 꼴이 신통히 그러하다.

얼마전 이 호전분자는 공개석상에서 《〈작전계획 5015〉를 적극적인 군사개념으로 발전시키라.》느니, 《북의 핵, 미사일공격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느니 뭐니 하는 폭언을 쏟아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장관병거지를 쓴지 며칠 되지도 않은 햇내기 가소로운 객기가 아닐수 없다.

송영무로 말하면 지난

1999년에 있는 1차서해무장충돌사건에 가담하는 등 대결책동에 앞장서온 호전광이다. 이런자가 지영무가 노는 꼴이 신통히 그러하다. 송영무가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상전들도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인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겁을 먹고 벌벌 떨고있는 판에 그 하수인들의 처지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세치도 안되는 허매문에 긴목이 잘리운다는 말이 있다. 송영무는 함부로 입부리를 놀리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조선 농민단체들

선거공약을 뒤집은 당국을 비난

남조선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농민회총련맹이 20일 쌀가적인상을 비롯한 선거공약들을 뒤집은 당국을 비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집권자가 법개정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을 100일만에 뒤집어버렸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그것

은 지난 시기 2차례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라는것이 리명박, 박근혜의 정책과 같으며 중소농업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단죄하였다.

당국의 《국정》 과제수행비용가운데서 농업분야는 겨우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명

은 당국의 정책이 농민들의 불안감만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여성농민회총련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쌀가격이 폭락한 책임은 당국의 쌀시장개방과 쌀수입정책에 있다고 폭로하였다.

성명은 이런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농업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도물 《정권》이 낳은 또 하나의 추문사건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기 마련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군수산업분야에 대한 재수사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 엄청난 부정부패행위들이 드러나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하고있다.

검찰수사가 심화되면서 박근혜역도가 2012년 《대통령》 선거때 전 항공우주산업 사장 하성용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역도년은 그 대가로 집권 첫해인 2013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하성용의 불법자금조성과 횡령 등의 부정부패의혹을 보고받고도 회사에서 사직하였던 그를 항공우주산업 사장직에 막무가내로 올려 앉혀있었다고 한다. 그후 역도년은 기회가 있을 때마

다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했다는 기동직승기 《수리온》, 초음속고동훈련기 《T-50》 등에 대해 자랑하면서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떠벌이였다고 한다.

더우기 역도년은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수리온》이 기관결함으로 자주 추락된다는 사실과 개발비를 불구어 수천만US\$의 폭리를 얻은 혐의, 불법자금조성의혹 등을 보고받고 이를 덮어버린데 이어 하성용을 또다시 사장으로 선임시키었다.

전 항공우주산업 사장인 벌린 퇴물작전은 비단 박근혜역도년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하성용은 자기의 죄행을 가리우고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역도년의 수족노릇을 하던 전 청와대비서관 정

호성, 안봉근, 리재만 등 《문고리권력 3인방》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게는 물론 2016년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계 파의원들에게 수많은 돈을 찢러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시기 청와대와 검찰, 방위사업청이 모두 남조선 항공우주산업의 부정부패행위들을 덮어버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보수패당들과 방위산업체인 항공우주산업사이의 부정적인 밀착관계를 제2의 박근혜추문사건, 《역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돈에만 미친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번에 폭로된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시기 보수패당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저지른 부정부패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예비에 그 딸이라고 《유신》독재자로부터 권력과 재부에 대한 탐욕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박근혜는 권모술수로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집권 4년기간에 하라는 정치는 한갓 무당년에게 맡겨놓고 뒤돌방에 앉아 재물의 보따리만 챙기었다.

오물은 들출수록 악취만 풍긴다고 날이 갈수록 새라새롭게 드러나는 박근혜역도의 부정부패행위들은 역도년에게 조금도 사정을 보지 말고 정벌을 내려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김석철

조미대결의 역사적 과정과 그 전망

—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대표가 설명회를 진행 —



지난 13일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대표 로길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인평화운동단체 《국제행동센터》를 대상으로 《조선반도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평화운동가들과 재미동포 수십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로길남은 설명회에서 조선반도문제의 발생근원과 공화국의 수소탄 및 대륙간탄도로켓보유로 변화된 조미력학관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변화의 필연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들어 이야기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의 위기가 미국에 의해 산생되었고 지난 70여년동안의 도발행위도 미제국주의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하면서 현시기 국제사회가 떠들어대는 《북핵문제》도 미지배세력의 무모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끊임없는 핵공격위협때문에 산생된 것이

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폭로하였다.

로길남은 북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가 성공한 후 미국과 남조선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북조선은 미국과 아시아의 위협이라고 떠들고있지만 진짜 위협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지나온 조미관계력사가 이를 증명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분열이전의 조선은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이름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오면서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1000여차례의 침략을 받아왔고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백수십년전부터 침략을 받아왔다고 까밝히었다. 미국은 1866년 대포로 무장한 침략선으로 대동강에 침입했다가 평양인민들의 반격으로 격퇴당한 《서면》호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수상 가쓰라와 미육군장관 타프트가 일본의 조선침략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호상 인정해준 것으로 1905년 가쓰라-타프트밀약사건 등 백수십년전부터 조선반도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데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살육을 비롯한 갖은 범죄행위를 저질러온데

대하여, 조선정전협정을 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반입하고 《푸에블로》호사건을 비롯한 각종 도발사건들을 일으켜온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지도에서 볼 때 미국령토의 8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인 조선이 미국과 70여년간이나 적대관계를 지속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조선반도지배정책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로길남은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위협과 고립압살정책에 대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불법강점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 갖은 위협을 가해온 조건에서 조선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미제국주의세력의 협박과 위협을 극복할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7월 4일 단행한 대

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이 북의 핵무력과 로켓무력강화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막아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에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공격을 막아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 자위력이라는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있기때문에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묘사하는 《북조선도발》이라는 표현은 미제국주의세력의 중상과 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설명회의 결론에서 로길남은 세계는 지금 대륙간탄도로켓을 단번에 성공시킨 조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세

계적인 대륙간탄도로켓강국으로 우리러보고있다고 하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까지도 조미대화가 불가피해진데 대하여, 조미관계해결은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보도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미군의 전쟁범죄사건들에 대해 조선에 사죄하고 보상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1953년의 정전협정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으로 하여 아직도 조선반도에서 수많은 흠어진 가족들이 분리의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라면 당장이라도 조선반도에서 물러나 간섭을 중지하고 남조선과의

합동군사훈련도 중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미국이 종전의 자세를 고집한다면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말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고 한 조선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자신은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 대해서는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 대한 어느 한 통신문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발사동영상의 상영으로 마무리한 설명회가 참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열띤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인평화운동가들과 동포들에게 조선반도문제의 발생근원과 해결전망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주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로근리사건과 우들의 현실

로근리사건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귀족같은 민간인학살만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복집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공격과 노도와 같은 진공에 의해 남으로 패주하던 미국은 1950년 7월 26일 부터 29일까지의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일대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당시 미군은 현지주민들에게 《인민군대가 밀려오고있으니 대우와 부산으로 피신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수백명의 인민들을 피난길로 내몰고있는 도

중에서 그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범죄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땅크를 동원하여 피난민들의 앞길을 막은 민간인학살을

막은 미군살인귀들은 잠시후 비행기들을 호출하여 무고한 주민들의 머리에 폭탄을 무차별 퍼부어댔다. 들판은 삽시에 인민들의 시체로 덮여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키식 인종증은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철길밑에 있는 쌍굴로 몰아갔다. 쌍굴의 바깥쪽에는 민간인학살을 위해 미군이 기관총좌치를 미리 설정하고 매복해있었다. 얼마후 피난민들이 들어간 쌍굴안의 바깥에서 미군이 쏘아대는 기관총탄들이 우락치듯 날아들어왔다. 그러한 사격만행은 여러날에 걸쳐 계속되었다. 쌍굴안은 피난민들의 시체로 가득차고 피가 도랑처럼 흘렀다.

지금도 로근리일대의 철도밑에 있는 굴간입구에는 미군이 란사한 기관총탄자국이 생동히 남아있어 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을 고발하고있다.

로근리사건은 결코 전쟁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군이 조선민족대학살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민간인학살만행사건이다. 로근리에서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미군이 3년간의 전쟁기간 도처에서 조선민족을 상대로 귀족같은 학살만행들을 저질렀다는것은 역사에 생동히 기록되어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미군은 결코 《보호자》나 《우방》이 아니라 식민지배자, 강점자이며 살인마일뿐이다. 로근리에서 감행된 미군의 민간인학살사건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만치도 여기지 않는 양키들의 살인마적기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의 야수적기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군은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도처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을 하루 세끼 밥먹듯 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 《죽음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탄저균과 탄저균보다 10만배의 독성을 가진 맹독균인 보툴리움까지 끌어들이 실험하는 범죄적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강박하는 상전, 찢찢대는 하수인

지난 12일 미국은 무역대대표부를 내세워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절차를 시작하겠다는것을 정식 통지하였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저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쌍방이 합의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는것은 국제법적규범에도 어긋나고 국제관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이것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식민지노복의 운명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의 후안무치하고 날갈도적인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남조선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가해국의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즉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맡아 처리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지배와 영향력 밑에 있는 기구가 미국의 일방적리익만을 대변할것이라는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에 미국의 의무조항은 7개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조항은 무려 55개에 달한다. 이처럼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은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미국에는 막대한 리익을 주고 남조선에는 의무만 잔뜩 들썩은 불평등한것이다. 《협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들을 뜯어고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남조선에 그렇게 등쳐먹고도 성취를 자기합리화할수 없다. 즉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맡아 처리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지배와 영향력 밑에 있는 기구가 미국의 일방적리익만을 대변할것이라는것은 당연하다.

추악한 오합지졸의 무리, 미국의 식민지고용군

남조선군내에서 자살과 폭행, 군무기피 등 각종 기강해이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 22사단 소속의 한 사병이 상급보통리용까지 끌어들이 실험하는 범죄적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군내에서는 장교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평균 3일에 1명씩 사병들이 자살하고있다 한다. 이것은 남조선군에 미국식생활방식과 가치관, 강개식병영문화와 구일본군대의 《혹독한 규율》이 그대로 도입되어있는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군내에서는 성폭행과 성희롱현상이 우습게 여겨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사병들과 장교들도 늘어나고있다. 비인간적인 폭행에 대한 울분이 쌓일대로 쌓인 사병들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상급부터 씹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의 총알받이로 전쟁연습마당에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언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것이 남조선군사병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시원한 청량음료로 더위를 식히며

《요즘같은 삼복철에는 이 대동강맥주이상 없다니까.》

《저렇게 코를 꿰어 묶여있는 (푸에블로) 호를 보며 마시니 맥주맛이 더 좋구만.》

...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피어난 한뼉기의 아름다운 꽃마냥 유정하게 안겨오는 만수교청량음료 맥주홀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무더운 삼복철이 계속되고있는 요즘 여기서는 시원하면서도 쯤한 대동강맥주로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히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흥성이고있다.

만수교청량음료점에서 인기있는 청량음료는 뭘

니워니 해도 대동강생맥주이다.

흰쌀과 보리의 배합비율에 따라 그 품종만 해도 7가지나 되는 대동강맥주이지만 늙은이, 젊은이 할것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으뜸가는 청량음료이다.

이뿐이 아니다. 만수교청량음료점에서는 합성빵과 닭알빵, 팔각소모빵, 남새소모빵같은 빵뿐아니라 햄버거, 샌드위치, 베네토스피와 같은 외국의 음식들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청량음료도 함께 봉사하고있다. 또한 차와 커피를 봉사하는 곳도 있는데 아늑하고 안정감이 나는 이곳에 앉아 그 이름도 뜻깊은 은정차를 마시는 기분 또한 유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4월 새로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았으셨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만수교청량음료점을 새롭게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설계와 건설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까지 취해주셨었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만수교청량음료점은 단 몇달사이에 본래보다 더 크고 현대미가 나게 일떠서게 되었다.

주방시설과 냉동시설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다 현대적으로 그쯘하게 갖추

어진 이곳 청량음료점을 찾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사는 리명국(56살)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는 만수교청량음료점은 건물도 최고수준이고 음식맛도 더할나위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퇴근길에 들려서 시원한 대동강맥주를 마시니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수교청량음료점을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그 하나만의 심정이겠는가.

인민의 령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는 공화국의 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행복넘친 인민의 목소리인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여름에 먹어야 할 7대식품

- 1. 수박
수박에는 수분이 92% 들어있기때문에 몸안에 수분을 보충해준다. 또한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 2. 랭커피
여름에는 랭커피를 아침에 마시는것이 제일 좋다. 매일 랭커피를 한그릇씩 마시면 여름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암의 발생위험성을 낮출수 있다.
- 3. 알곡류
알곡류에는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 해주는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다. 또한 로인성질병의 발생위험성을 낮추어준다.
- 4. 오이
오이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있으므로 몸안의 수분을 보충해주면서도 독성물질을 몸밖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준다.
- 5. 랭차
랭차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성을 낮출수 있으며 이발, 이몸, 뼈를 튼튼하게 한다.

- 6.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는 몸에 좋은 칼슘, 칼슘, 단백질, 비타민과 같은 광물질들이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요구르트에 장의 영양물질흡수에 도움을 주고 면역계통을 안정시키는 균이 들어있는것이다.
- 7. 망고
망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해준다.

본사기자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5)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선선히 물건을 내줬다는 한명회의 말에 학재는 너무도 황송한듯 땅바닥에 꿇어엎드려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그만 일어나게.》

하는 말이 그쯤한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는 어투였다. 학재는 머리를 들어 안방을 둘러보다가 어느 한 장롱에 눈길을 멈추었다. 찰찰 윤기도는 까만 옷철에 번쩍거리는 금장식을 한 장롱은 얼핏 보기에다 값이 꽤 나갈것 같은 물건이었다.

《이 장롱이 참 마음에 드오이다.》

《허허, 자네 역시 장사질을 하다나니 물건 볼 줄을 아는구만. 그럼 그걸 가져가게. 그안의것들은 다 꺼내놓구 말일세.》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찌근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병풍을 섰듯 내놓은

장사군의 아쉬움에 비기라싶어 그렇게 하도록 하였던것이다.

《대감님의 높은 덕을 평생토록 잊지 않겠소이다.》

《그쯤 일루 뭘 그러냐, 댔네.》

이렇게 병풍과 장롱을 바꿔가지고 대문을 나선 학재는 《후.》하고 코소리를 내며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

실은 그 병풍이란것이 가짜인데 그것을 험값으로 사온것은 이렇게 량반들을 팔랑먹이기 위한것이였으니 한명회는 시퍼런 대낮에 눈을 뻔히 뜨고도 장사군에게 한뼉천 단단히 뽐히운셈이였다.

학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시습이 웃으며 물었다.

《허허허,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그래 속이 떨리지 않던가?!》

《아,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첩엔 속이 좀 떨립디다오. 현대 정작 원썩같은 놈과 마주서고보니 눈에서 불이 철철 흐르는데 그러느라니 떨리던 손도 점차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배짱만 생김디다오. 하하하!》

학재는 자기가 한 일이 자못 통쾌했던지 소리내어 웃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량반이 병풍에 글을 쓸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증언거리던데...》

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는 학재의 말뜻은 혹시 시습이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왜 말꼬리를 사리냐? 혹시 내가 가서 글을 썼으면 하고 생각하는건 아니냐?》

《그걸 어떻게...》
《자네 얼굴에 그제 다

나타나는데두... 허허!》
학재는 시습이 자기의 속생각을 그렇듯 쉬이 알아맞추니 기분은 그닥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할 소리는 다 하고야말았다.

《그렇다치시다. 그래 형님의향은 어떻소?》
학재의 말을 들으면서 시습은 그럴 생각이 바이



없는것도 아니였기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가 하였다.

《그래 생각이 있소?》
《글쎄...》

시습이 비록 대답은 애매하게 하였으나 마음은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전국적으로 국가컴퓨터망과 이동통신망이 구축되고 정보통신수단이 갖추어져있는 공화국에서 최근 상업의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제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제품을 봉사하는 상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상점위치정보와 가격정보, 새 제품정보들을 알고싶어한다.

또한 생산부문에서는 같은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몇개이며 다른 단위의 제품과 자기 단위의 제품과의 질적 차이, 사람들의 수요 등의 경쟁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 새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사람들에게 새 제품의 용도와 질적개선에 대한 정보를 시급히 알려주

는것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업정보를 봉사해주는것으로 하여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은 요즘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의 특징은 생산기업소들과 상점들이 자기 단위의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와 홈페이지에 자체로 필요할 때마다 올릴수 있고 구매자들도 국가컴퓨터망과 손전화자료를통신망에 가입하여 아무때나 열람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만물상》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단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제품구입을 위해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지는 그 리 오래지 않지만 현재 이

홈페이지의 하루 상품등록건수는 수백여건이고 하루 홈페이지열람자수는 국가컴퓨터망과 이동통신망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의 봉사와 함께 생산단위들의 기업전략과 상업들의 판매방식, 사람들의 제품구입방식도 달라지고있다.

현재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은 사람들의 소비품구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수단으로 서뿐아니라 기업소들간의 생산경쟁과 제품의 질경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수단으로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데도 리용되었다.

이렇듯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온 조선수예는 오늘 그 색채

전통적인 조선수예창작기지

평양수예연구소

의 화려함과 고상함, 무늬형상에서의 생동성과 정묘함, 기법의 다양성으로 하여 세인의 찬사를 받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평양수예연구소는 전통적인 조선수예를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고있는 창작보급기지로서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연구소에서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미술형식인 조선화에 바탕을 두고 회화적성격을 띤 손수예기법들을 연구발전시키면서 인물수, 풍경수, 동물수, 화조수 등 각종 손수예, 기계수에작품들을 전문으

로 창작하고있다.

실배합의 난도성이 높아 립체감이 강하고 선명하며 대상의 본색을 돈구

면서 화색의 색채가 조화롭게 통일된 이곳 회화수예의 인기는 매우 높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150여가지의 손수예기법들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우수한 창작력량과 작품을 보유하고있는 평양수예연구소는 국내외에서 수예전습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활동과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른 주문수예봉사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